

# 직지, 광명·보령서도 인기

## 인협·고인쇄박물관, 학습축제서 인쇄문화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은 공동으로 지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광명에서 열린 평생학습축제와 10

월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개최된 평생학습 축제에 직지 및 인쇄홍보관을 마련, 우리나라의 찬란한 인쇄문화

를 홍보했다.

홍보관에는 직지심체요절 영인본과 활자판,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등



과 한국의 인쇄문화 자료를 전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인쇄문화 홍보물을 인쇄해 방문객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이와함께 직지 활자관을 활용, 인쇄시연행사와 전통책 꿰매기 행사도 진행했다.

광명 학습축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평생학습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교육청, 광명시가 주관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9개 평생학습도시 등이 참가해 평생학습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 온라인 평생학습페스티벌,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평생학습관련

전시회 등 150여개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기간에 초중고 학생 등 10만여 명이 다녀갔다.

보령도서관에서 열린 보령학습축제는 충청남도의 주최로 개최돼 충청 일원의 학생 등 3만여 명이 참관했다.

11일부터 3일간 충남 보령교육청이 주관한 '제5회 충남평생학습축제'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 잔치, 청소년페스티벌, 백일장 및 휘호대회, 청소년시낭송대회, 충남관악제, 학술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

가 펼쳐졌다.

야외에서는 직지체험관과 도자기 만들기, 조개껍데기 그림그리기, 얼굴 페인팅, 장서표 만들기, 작은 책 만들기, 명품 다이어리 만들기, 그림책 원화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전통책 꿰매기, 솟대 만들기와 쌍옷놀이, 승경도 등 전통놀이가 관람객들을 맞았다.

전시실에서는 충청남도 내 평생학습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했다.

1. 보령학습축제서 직지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2. 광명학습축제를 돌아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인협 민청준부회장 홍우동회장, 오세익전무, 조만정부회장(오른쪽부터) 3. 광명학습축제서 직지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4. 도서관장의 안내로 보령학습축제를 돌아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인협 홍우동회장과 민청준 부회장

